

추 모 사

피해자 가족과 일본 국민 여러분,
황망한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련의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움으로만 남겨야 하는 안타까움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재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이를, 내 이웃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기에, 평등한 우정으로 행복을 베풀자는 따뜻한 1년으로도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일 양국의 국민과 불교계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연히 대처하는 일본 국민의 모습에서 한국 국민은 감동하였고,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보여준 한국 국민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동은 참화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었던 이심전심의 따뜻한 화답이었습니다. 또한, 양국 불교계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였고, 양국의 신뢰를 보다 돈독하게 해주었습니다.

첨단과학으로 대변하는 현시대에도 인류가 직면하는 자연 재해는 예측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자연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다는 탄식을 날게까지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 재해 극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대지진 피해 1년을 추모하면서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불자들과 국민들은 이웃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아물지 않는 아픔에 손 내미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사부대중과 양국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지진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희생된 영가와 그 남겨진 가족에게 항상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